



●● 2004년도 한마음 전진대회를 다녀와서 ●●

자연을 호흡하며 전직원이 한마음 되던 날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관리부 이성현

인간의 한마음 전진대회

지난 6월 3일 저녁부터 6월 4일 까지 2004년도 임직원 한마음 전진대회가 치러졌다.

설비조합 임·직원 모두가 좋은 계절에 몸과 정신을 단련하여 조합원 서비스 향상을 다짐하는 취지에서 매년 창립기념일 즈음에 치르고 있는 이 행사는 올해 전북 무주에서 열렸다.

지점 및 부서원간의 팀워크를 다지며 하루를 보내며 즐거운 한때를 보낸 우리들에게 이 날은 한바탕 윤패함을 쏟아내고 그 동안 지쳤던 일상의 삶을 걷어내기에 족한 시간이었다.

6월 3일 목요일 저녁, 행사장소인 전북 무주에 소재한 토비스콘도로 출발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일주일의 피로가 몰려오며 여행의 설렘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희색빛 서울을 빠져나가면서 차창으로 보이는 초록의 녹음에 지방직원들과 즐거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란 기대감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런 행복한 예감에 부응하듯 우려했던 교통체증이 없어 밤 8시 30분이 조금 넘어 토비스콘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먼저 도착해 있었던 지점직원들의 반가운 인사와 맑은 공기, 바람 소리에 실려온 풀벌레 울음소리는 더 없는 환영의 인사였다. 짐을 풀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만끽했고, 삼삼오오 그 동안 못 나누었던 이야기로 시간이 흐를 때쯤 연회장에서 정성껏 준비해 놓은 음식과 함께

“임·직원 한마음대회”가 시작되었고, 사회자의 흥겨운 진행 속에 웃음꽃을 피우며 직원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특히, 팀별로 진행된 장기자랑 시간은 서로의 숨은 재주에 놀라며 온통 웃음 바다였다. 비록 전국 각지에 떨어져있지만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이기에 금방 흥겨운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흥분의 도가니 속에 그 밤은 짧게만 느껴졌다.

다음날,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치러진 체육대회는 총무부의 빈틈없는 준비 속에 11개조로 나누어 등산과 게임을 하면서 거친 호흡 속에 서로의 지친 몸을 이끌어주고 피부를 맞대면서 직원들간에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직급과 나이를 떠나 모두가 설비조합의 직원임을 일깨워 주었으며, 단순한 등산이 아닌 게임과 같이 이동하는 훈련은 상상외로 재미와 박진감이 넘쳤고 계곡의 맑은 물소리를 듣노라면 진정 자유인이 된 듯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모두 떨쳐버릴 수 있었다.

콘도로 돌아와 점심을 마치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서울로 돌아오는 길, 짧았던 1박 2일이었던건만 기억에 남는 일이 왜 그리도 많던지…….

몸은 좀 피곤하지만 오랜만에 재미있었던 기억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